

**담당 : 홍보팀 임정수 차장ㅣ Office : 02)560-4434 ㅣ Mobile : 010-7680-8653 ㅣ E-mail :** [**media@klpga.org**](mailto:media@klpga.org)

**제17회 두산 매치플레이 우승자 이예원 코멘트**

**◈ 대회개요**

|  |  |  |
| --- | --- | --- |
| 1 | 대 회 명 | 제17회 두산 매치플레이 |
| 2 | 기 간 | 2025년 5월 14일(수) ~ 5월 18일(일) |
| 3 | 장 소 | 라데나 골프클럽 [네이처(OUT) / 가든(IN)코스] |
| 4 | 주 최 | ㈜두산, 두산에너빌리티 |
| 5 | 주 관 | KLPGA(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) |
| 6 | 총 상 금 | 10억 원 (우승상금 2억 5천만 원) |
| 7 | 코스길이 | 파72 / 6,384야드 |
| 8 | 참가인원 | 64명 |
| 9 | 주요  출전선수 | 안선주, 박현경, 박지영, 황유민, 김수지, 마다솜, 이예원, 노승희  배소현, 방신실, 이제영, 전예성, 최예림, 정윤지, 유현조, 이가영  (A그룹 1번 시드부터 16번 시드까지) |
| 10 | 중계방송 | SBS골프, 네이버, 다음카카오, U+모바일tv |
| 11 | 방송일정  (생중계) | [조별리그 1R(5월 14일)] 11시 ~ 17시  [조별리그 2R(5월 15일)] 11시 ~ 17시  [조별리그 3R(5월 16일)] 11시 ~ 17시  [16강, 8강(5월 17일)] 09시 30분 ~ 18시  [4강, 3-4위전, 결승(5월 18일)] 09시 30분 ~ 18시 |

**◈ 결승전 이예원 4&3 승(VS 황유민)**

**[상세 프로필]**

<https://klpga.co.kr/web/profile/mainRecord?playerCode=9784>

**[이예원 주요 기록]**

- 매치플레이 통산 20승 4패 승률 83.33% 기록(역대 승률 4위 등극)

\*1위 박인비 88.89%, 2위 전인지 87.50%, 3위 박성현 85.71%

- 우승상금 2억 5천만 원 더해 2025시즌 7개 대회만에 누적 상금 7억원 돌파(약 7억 5천3백만 원)

- 생애 통산 상금 40억 원 돌파 눈앞(통산 누적 상금 3,972,622,767 원)

**우승 소감**

우승 꼭 하고 싶었다. 두 번이나 준우승 해서 아쉬움 많았다. 정말 기쁘다. 1번 홀에서 3퍼트 하면서 승리를 내줬는데, 덕분에 그 다음 홀부터 집중을 잘 했던 것 같다. 1번 홀에서의 실수를 완전히 잊고 내 플레이를 잘 해서 우승까지 이어진 것 같다.

**체력 좋아진 것 같은데?**

그렇다. 작년과 루키 때는 결승에서 다리가 후들거리고 스윙을 하지 못하는 느낌이었는데, 오늘은 플레이 하는 내내 오히려 4강보다 결승전에서 아이언이라던지 모든 플레이가 더 좋았던 것 같다. 체력이 좋아져서 우승할 수 있었다.

**세컨드 샷을 먼저 치는 전략 결승에서도 그대로 했는지?**

그렇다. 노린 건 아니고 유민이가 거리가 더 많이 나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먼저 치긴 했다. 근데 상대방보다 먼저 치는 것을 선호한다. 그게 오히려 부담 없이 플레이할 수 있다.

**4강과 결승 더 힘든 경기?**

부담감은 결승전에서 조금 더 있었다. 결승 진출이 세 번째라 이번에는 꼭 우승하고 싶다는 생각 때문에 부담이 있었다.

**22년 결승에서 만나 패한 홍정민을 이기고 올라와서 자신감이 더 붙은 것인지?**

정민 언니가 워낙 매치플레이에 강해서 이겨야겠다는 생각보다는, 샷 퍼트 모두 감이 좋았기 때문에 내 플레이만 하자는 생각이었다. 결과를 받아들일 준비되어 있었다.

**실수 없는 선수라는 평가. 비결은?**

매치에서는 공격, 방어할 홀을 선택하고 치는 편이다. 티 샷 미스가 조금이라도 있거나, 핀 위치가 어려우면 확실하게 파를 잡는 전략으로 하고, 버디 찬스 홀은 과감하게 버디를 잡는 전략으로 플레이하는 게 실수가 적게 나오는 비결이지 않을까 생각한다.

**3승 속도 빠른데 4승으로 다승왕하고 싶다는 목표 수정 있나?**

일단 4승이 목표다. 단독 다승왕 꼭 하고 싶다.

**7억 돌파 통산 상금 40억 눈앞이다. 투어에서 깨고 싶은 기록이 있다면?**

단일 시즌 누적 상금 기록을 깨고 싶다. 박민지 선수가 15억이 넘는 기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, 올해 그 상금을 넘어보고 싶다.

**곧 타이틀 방어전도 있는데?**

더스타휴는 공략적으로 영리하게 플레이해야 하는 코스인데 거기서 노보기 우승한 좋은 기억이 있다. 실수를 최소한으로 하고 타이틀 방어하고 싶다.

**상반기 쉴 대회 있나?**

아직은 쉴 계획 없다.

**시즌 많이 남았는데 체력적으로 자신 있는지?**

자신 있다. 지난해보다 훨씬 덜 지쳐 있고, 샷 컨디션도 올라와 있다. 여름 더위만 잘 대비한다면 좋은 결과 있을 것 같다